

여성이 조직에서 성공할 때와 실패한 때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높아가고 있다.

자기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여성들, 그러한 여성들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사회는 여성들의 고학력시대에 접어들었다.

다수의 전문분야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고도 있다. 그야말로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사법고시에서 수석을 하는가 하면, 유명연주자로서 성가도로서, 조각가로서, 전문 엔지니어와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또 저명한 여성 기업가들은 얼마나 많으며 훌륭한 어머니들도 많이 계신다.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개척자로서의 역할도 특특히 하고 있다.

세계는 남성의 힘으로서 지배하게 되나 그 남성은 여성의 치마폭속에서 지배당한다고 하였던가?

그러나 이제 여자, 그 여자의 본질적 가치성과 지혜만으로서 세계를 지배할 날도 멀지 않았다.

철의 대상 대치는 지략으로서 긴 치맛자락을 펴리며 세계를 휘젓고 다녔다. 아키노는 지혜로서 필리핀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도 이제 제대로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

유교사상이 팽배했던 봉건적 사회구조 속에서의 여성들은 바깥출입이 순조롭지 못했다.

한마디로 여자가 어디 감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운운..... 그러나 지나간 먼 역사속의 일들이다.

이제 그 새로운 의식과 자각으로 삶의 가치를 추구하여야 할 때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자이니까 이정도 밖에 못하겠다.

천만에 말씀, 여자이기에 여자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자기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여자 그 여자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한다.
여자들이 지위향상을 부르짖고 있다.
남녀평등이다. 여성상위시대다. 목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그러나 그 외침이 군중 심리적이다.
누가 남녀평등이 아니라고 했던가?
누가 여성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었던가?
목소리로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찾아야 한다.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조직속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한 여직원을 보자. 담당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열심히 자기가치를 찾아내고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을 때는 선택된 위치로 바꾸어 앉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여성들이 내가 대학졸업생이네, 고등학교 우등생이네, 그 가치를 인정하여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삶의 가치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찾아가고 찾아내고 개발하고 가꾸어 가는 것이다.
그 자신을 인정하여 준다.
“어이, 미스 한 대구에 출장 좀 다녀와야 겠어”
“아이 과장님도 참, 여자가 어떻게 대구까지 출장을 갑니까?”
“그래, 그럼 출장은 미스터 강이 가고, 미스 한은 오늘 저녁 철야근무 같이 좀 합시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친구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근무했다간 집에 서 쫓겨나요. 죄송해요 과장님.”
‘죄송하긴 쟈장, 나는 어디 약속이 없어서 야근하나? 이거 어찌지 내일 모래까지 이일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이 미스터 민 어쩔 수 없구만, 미스터 최랑 우리 세 사람이 한 이틀 철야를 해야겠네”

왜 여성들의 취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여성들의 책임이다.
여성들이 스스로 차별당하고자 하고 있다.
야근도 못한다. 철야도 못한다. 출장도 못 간다. 어렵고 힘든 일도 못한다.
그럼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놀고먹고 왔다갔다 얼굴에 화장이나 잔뜩하고 착 달라붙은 블라우스에 허벅지까지 올라온 핫팬츠지 속치

만지 옷인지 천 조각인지 이상한 것 같은 옷 하나 걸치고 앉아 몸매자랑만 하고 있을 건가?

그러고서도 월급만 받아갈 것인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도 성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이런 일도 있었다. 짓궂은 직장선배 왈 “어이 미스 한 옷이 멋 있는데, 몸매도 쪽 빠졌잖아” 그리고 아주 섹시한데 미스 한 입가에 함박 웃음이 가득 은근슬쩍 히프짜를 더욱 많이 실룩실룩 흔들면서 걸어간다.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 “미스 한 그 몸매 얼마주고 팔거요? 내 좀 사서 만져봅시다. 혹시 금 몸 팔것 아니면 광고좀 하지 말고 감추고 좀 다녔시다.”

홍당무가 된 미스 한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예잇 재수 없어 저렇게 멋없는 남자는 장가는 어떻게 갔지? 홀아비로 팍 늙어 버리지”

이런 여성은 회사에 입사하지 말라. 입사되어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직장에서의 품위는 지켜주자. 공동생활의 장으로서 조직의 목적을 추구하는 곳인 아니던가.

직장동료들에게 잘 보여줘야 점심 한 끼 공짜로 더 사주겠는가? 그것보다 자기자신의 자각의식을 먼저 일깨워 품위부터 지키자.

적당히 근무하다 결혼할 걸 많이 배워서 뭘 해? 골치만 아프게, 이런 사고방식을 씻어내자, 적극적인 자세와 헌신적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여성의 평등적인 가치를 선배들이 잘 심어두어야만 후배들이 그 가치를 평가받고 거두어 그 터전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목소리로 평등권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자기 스스로 실현되어짐을 느낄 것이다. 그런 분들만이 이 사회의 여성지도자들이 되어 자기 위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지혜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 여성의 섬세함과 감성과 감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성공하여 나아가라.

여성 그 여성임만을 강조하면 실패한 삶이 된다. 조직속에서도 사회역할 기능속에서도 여성으로서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한 줄기 밝은 등불이 되자.

♣ 본 자료는 저작권이 보호받고 있는
자료이므로,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